



2019. 1.

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



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

목 차

I.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

1. SNS, 블로그 등을 활용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홍보 및 홍보다각화 방안을 마련할 것.
2. 충북문화유산 및 충북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보존·관리 방안 및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.

II. 건의 및 촉구 사항

1.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.
2. 청소년, 학생, 노인 등 다양한 도민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
I.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

1. SNS, 블로그 등을 활용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홍보 및 홍보다각화 방안을 마련.

(사무국, 조용국, 043-279-5412)

□ 현 황

- 연구원에서 수행중인 문화유산 체험활동 홍보를 위하여 연구원 누리집 적극 이용 및 참여 신청 등 관련 서비스 마련.
-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등 SNS를 통한 홍보활동 추진
-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 홍보 위한 리플렛 발간·배포

□ 처리결과(계획)

- 홍보다각화 방안 마련
 - SNS(페이스북,인스타그램 등),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 계획 수립
 - 포털사이트 노출 효과를 위한 연구원 블로그 운영 계획 수립(19년 운영)
 - 연구원 성과 확산을 위한 언론보도 등 홍보계획 수립

2. 충북문화유산 및 충북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보존·관리 방안
및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.

(사무국, 조용국, 043-279-5412)

□ 현 황

- 2018년 6월 30일 보은 법주사가 “산사, 한국의 산지승원” 중 하나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.
- 충청북도 문화유산은 관광적 측면에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문화유산 자체에 집중한 홍보활동은 미약한 편임.

□ 처리결과(계획)

- 홍보방안
 - 세계유산 등재된 보은 법주사 홍보를 위해 『속리산에 깃든 불교문화』 도서 출판(18년 12월)
 - 충청북도문화재대관 편찬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19년 충청북도 문화유산 사진전 개최 예정 (장소: 청주, 원주, 전주)
 - 19년 충북 문화유산 대·내외적 홍보를 위한 지역문화유산 홍보 콘텐츠 개발 추진 예정 (사업기간 : 19년 ~ 22년)

II. 건의 및 촉구 사항

1.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.

(사무국, 조용국, 043-279-5412)

□ 현 황

- 정 원 : 30명
- 현 원 : 26명(기관장 포함)
- 정원외직(비정규직) : 8명

구 분	계	원 장	연 구 직					사 무 직				
			소 계	수 석 연구원	채 임 연구원	선 임 연구원	연구원	소 계	수 석 사무원	채 임 사무원	선 임 사무원	사무원
정 원	30	1	23	2	5	7	9	6	1	1	2	2
현 원	26	1	19	0	3	5	11	6	0	2	1	3

※ 정원외직(비정규직) : 8명

□ 처리결과(계획)

-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(18.08.27)
-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(18.12.07)
 -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단기계약직을 제외한 4명 정규직 전환 결정
-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규직 임명 (19년)
 - ※ 추진근거: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(18.05.31)

2. 청소년, 학생, 노인 등 다양한 도민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.

(사무국, 조용국, 043-279-5412)

□ 현 황

- 2018년 도민들을 위하여 청주 10회, 충주 4회, 옥천 6회, 진천 12회 등 총 35회의 문화재 교육프로그램 실시
-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 10회 실시 하여 전문인력 26명 양성함.

□ 처리결과(계획)

- 19년 도민을 위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
 -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
 - 양성된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“찾아가는 문화유산 방문교육” 실시(대상: 초~중학생)
- 또한,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추가로 실시하여 문화유산교육을 위한 강사 확보에 노력